

보도

“학생자율권 침해할 수 있다” ‘안전’ 손 놓은 대학본부

신입생 OT 안전대책

위자현 기자 jahyun307@knu.ac.kr
황경선 기자 sunny96@knu.ac.kr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신입생 OT)에 참가한 많은 새내기들이 목숨을 잃은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부는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연수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해 안전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사고대처방안 등을 담은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한 바 있다. 특히 공문에 따르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대학 측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성신여대의 경우 올해 신입생 OT를 학교 측이 주최하고, 학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염려를 덜기 위해 함께 초대하여 당일 행사로 진행한다. 한편 중앙대는 지난해 12월초 교무처장이 신입생 OT를 교내에서 당일행사로 진행하거나 안성캠퍼스 기숙사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하라는 내용의 ‘새터 진행안’을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 있다. 서울시립대는 총학생회측이 주관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입장 또한 나뉘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학생 자치활동의 일환이므로 학생회 활동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입장과 학생의 안전 문제가 중요한 만큼 학교 측이 주최가 돼 책임지고 운영해야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학교도 단과대학 별로 신입생 OT 기획이 한창이다. 대학본부 측은 신입생 OT 안전 계획 관여에 대해서는 학생활동의 자치권 문제를 이유로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한 발 물러서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신입생 OT는 학생들의 자치영역이기 때문에 행사에 관한 기획은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학본부 입장에서는 신입생 OT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해 대학 측이 주관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한 마당에 마냥 두고 보기에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며 “행여나 사고라도 난다면 책임은 학교 측이 질 텐데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즉 대학본부 측은 안전 문제에 대해 염려가 되



2012년 외국어대학 신입생 OT

긴 하지만 신입생 OT를 주관할 경우 일어날 학생들의 반발 때문에 이리저리 저지리도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총학 이정이(아동가족학 2012) 회장은 “신입생 OT 행사는 단과대학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총학생회 측에서 관리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는 것 이 적절하다”면서 “안전에 관한 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학내 외 행사와 관련한 안전 수칙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운영위원회, 학대운영위원회와의 합의를 통해 자체규정을 만들고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 역시 학교측과 마찬가지로 각 단과대학별로 기획하는 신입생 OT에 대해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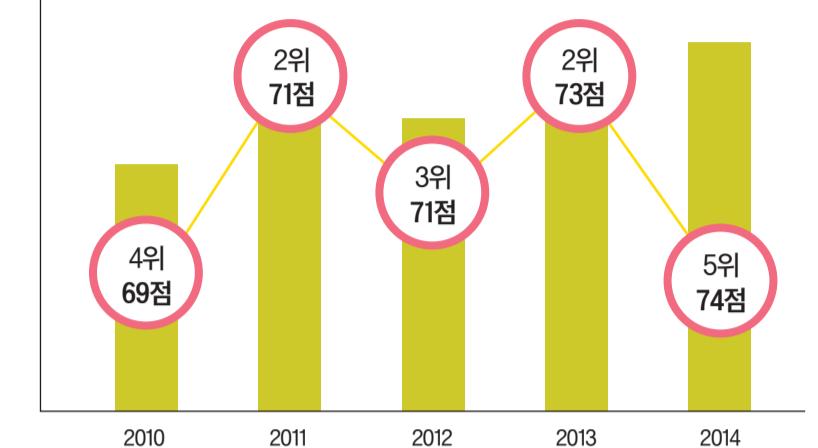
우리신문의 취재결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안전에 대해 각 단과대학 자체적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전공학과 학생회측은 “신입생 OT 장소로부터 안전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했으며 여러차례 답사를 다녀왔다. 또한 학교 측에 학과장과 행정실 직원이 2박3일간 동행할 것을 요청해 승인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호텔관광대 학생회 측은

“학생들이 타고 이동할 버스의 연식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숙소의 안전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뒤 가장 안전하다고 보이는 곳으로 선택했다”며 “최종 결정 사항들을 정리하여 우편으로 각 가정에 공지한 뒤 본격적으로 신입생 OT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안전문제에 대해 일관된 매뉴얼이나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학교 측 관계자는 “학교가 관여하면 학생들이 불편해할 것이고, 관여하지 않자니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저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올해만 하는 단발성 행사가 아니다. 매년 진행되는 행사이므로 학교 측과 학생 측의 입장정리를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활동의 자치권도 중요하지만 ‘안전’ 또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측의 일방적 개입 혹은 학생회 측의 무조건적인 자치권 요구는 지양하고 양 측 간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NCSI, 점수는 1점 상승 했지만 순위는 5위로 5년 중 최하

〈최근 5년간 NCSI 순위 및 점수 변화〉



이진우 기자 urusa93@knu.ac.kr

우리학교가 14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2014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74점(100점 만점 기준)을 획득해 공동 5위에 올랐다. 지난 2013년 같은 조사대비 점수는 1점 올랐지만 등수는 3계단 떨어졌다.

우리학교는 7년 동안 이 조사에서 2010년 69점으로 4위에 머물렀던 것을 제외하고 항상 2위와 3위를 오르내렸다.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미래정책원은 “상승 요인은 ‘고객불평률’과 ‘총성도’ 부분이 전년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소폭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점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등수가 떨어진 것은 다른 학교의 점수 상승폭이 워낙 높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려대의 경우 2013년 조사에서 67점으로 9위에 머물렀으나, 2014년 조사에서 10점이나 상승한 77점을 받아 2위에 올랐다. 이화여대 또한 지난 해 조사보다 10점이 상승한 74점으로 우리학교와 함께 공동 5위를 기록했다.

빅데이터 연구센터 6억 지원 받아

후마니타스 빅데이터 연구센터 중점연구소 선정

권윤지 기자 happitice2@knu.ac.kr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빅데이터 연구센터(빅데이터 연구센터)’가 지난달 한국연구재단이 지정한 중점연구소로 선정됐다. 국내 중점연구소 중에서는 최초로 ‘빅데이터’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곳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6억을 지원받는다.

최근 IT 분야의 화두가 되고 있는 빅 데이터(Big Data)는,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방대하고 순환 속도가 빨라 기존의 방식으로는 수집 및 분석이 어려운 정보를 뜻한다. 빅데이터의 순기능도 상당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윤을 위해 개인의 생활에 밀접한 데이터까지 수집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에 빅데이터 연구센터는 ‘인간 중심의 빅 데이터’에 무게를 두고 있다. 후마니타

스 가치에 맞게 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같은 거대한 집단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예를 들어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이 자살 직전 SNS에 어떤 글을 올리는지 분석해 이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살률을 낮추는 효과 등을 연구한다. 때문에 참여하는 연구원이나 교수 중에는 공학박사뿐만 아니라 인문학 전공자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아쉽게도 현재 학부 강의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강의가 없는 상태다. 그렇지만 경영대학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에 빅데이터 전공이 있고, 소셜네트워크과학과 석박사과정도 빅데이터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연구센터 박재홍 부소장은 “우리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술적 자산을 기반으로 관련 학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전했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①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